



分校圖書館의 合理的인 組織運營方案

申 鉉 德
慶熙大學校水原大圖書室長

1. 序 說

最近 2~3년 내에 서울市內에 所在하는 私立 綜合大學校들이 서울에서 通學이 가능한 近距離에 있는 京畿道 내지 기타의 인접 지역에 문교부로부터 分校設立認可를 받아, 本校의 규모를 10여년 내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大學設立에 서로 경쟁이나 벌리듯이 校舍의 新築과 學科의 增設을 서두르고 있다.

分校設立의 목적은 대학마다 약간의 差異點이 있겠지만, 서울市內에 있는 대학들의 學科增設이 거의 불가능한데 반하여 分校는 地方大學으로 看做되어 학과의 대목적인 증설과 大學定員의 증원이 가능하므로 본교에 대한 設立投資는 短期的으로 볼 때는 대학의 시설과 규모를 확장하여 大學進學의 길을 넓혀 주는 동시에, 長期的으로 볼 때는 서울에 소재하는 本校를 포함하는 大學全體의 發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종합대학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財政的 支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교에 대한 施設投資를 自力으로 充當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校舍의 新築, 教授의 確保 및 도서관을 비롯한 分校 自體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확충에는 아직도 草創期이므로 상당액의 後續의인 投資가 뒷받침해 주어야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本論文의 목적은 分校圖書館을 본교의 中央圖書館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組織하여 運營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効果적으로 大學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나 하는 문제에 관한 몇가지 事項을 理論的인 면에서 살펴보려는데 있다.

2. 獨立性과 從屬性

外國의 事例를 보면, 分校圖書館의 地位가 分校設立의 根本目的과 必要性的 差異에 따라 相異해질 수 있다¹⁾. 미국의 예를 들면, 中·西部의 거대한 州立大學

校制度(state university system)를 構成하고 있는 單位大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어느 특정한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本校와 分校라는 上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構成單位가 독립적으로 모든 學事行政과 財政上의 自律性을 유지하면서 全體的으로 보는 경우, 그 州內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高等教育을 담당하고 있다는 共通點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만 보더라도 독립한 캠퍼스가 Berkeley, Los Angeles, Irvine, Long Beach, Davis, Santa Barbara 등 광활한 州의 각처에 散在해 있으며, 그 중에서 Berkeley나 Los Angeles 캠퍼스가 餘他的 州립대학에 비하여 그 규모나 학생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크다고 해서 州內의 他州立大學 構成員에 대하여 指揮監督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東部地方의 소규모 州립대학교 제도인 University of Connecticut의 경우를 보면, Waterbury, Hartford, New London 등 州內의 여러 곳에 散在해 있는 分校(branch)에서도 Storrs에 소재하는 本校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있지만, 본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학과와 학생수가 限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年制의 低學年教育만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4年制의 全課程을 마치기 위해서는 3~4학년의 과정을 本校에 와서 履修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制度上으로 要求하고 있으므로, 中·西部의 州립대학교 제도와는 달리 本校와 分校는 上下의 關係에 있으며, 學事行政 및 財政問題 등에 있어서 分校는 限定된 範圍이기는 하지만 본교의 指揮監督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州립대학교 제도는 land-grant college에 그 起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동부지방의 名門私立大學校

1) 李炳穆 譯, "大學에 있어서의 分館을 위한 指針," 도협월보 Vol. 18, No. 6(Jul.-Aug. 1977), pp.17~19 참조.

인 Ivy Leaguers²⁾와 같은 규모를 갖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자제를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州政府가 土地를 供與하여 大學運營의 財政的인 基盤으로 삼게한 것이다. 오늘날 Ivy Leaguers들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중·서부의 거대한 주립대학교들의 경우도 初期에는 農學이나 林學 또는 畜産 등의 분야에만 限定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教育熱이 커짐에 따라 광대한 주내의 여러 지역에 최초의 land-grant college와는 별다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지만, 州政府로부터의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들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University of Connecticut와 같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립대학교 제도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本校와 分校라는 區分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에 설립된 주립대학이라 할찌라도 먼저 설립된 州內의 他州立大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本校와 分校라는 從屬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學事行政과 財政運營이 獨立되어 있으므로 주내의 특정한 대학교 또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圖書館의 組織과 運營은, 자연 獨自的으로 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分校들은 그 設立認可에 있어서는 분명히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上下關係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實際運營上에 있어서는 別個의 大學校를 또 하나 設立運營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樣狀을 띠고 있는 것이 延世大의 原州分校³⁾와 같은 例外를 除外하고는, 新設된 大部分의 本교에 있어서의 實態인 것 같다.

漢陽大學校의 半月分校, 成均館大學校의 水原分校, 中央大學校의 安城分校 및 慶熙大學校의 水原大學 등은 延世大學校의 原州分校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4年制學科의 設立認可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교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위치가 애매모호하게 될 餘地가 다분히 있다.

1979년 1월 10일에 認可를 받은 慶熙大學校 水原大學의 경우는 8개 학과의 입학정원 450명으로 시작한 것이, 1980년 3월부터는 4개 學部의 15개 학과로 改編되어 입학정원도 750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본교의 性格上 본교 내의 他單科大學과 동일한 위치에서 다루는 것이 設立目的으로 볼 때 妥當하겠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이미 본교의 어느 단과대학도 追從을 不許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潛在性을 다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實際運營問題를 둘러싸고 獨立의이나 아니면 從屬的인 位置에 있느냐 하는 데 대하여 混亂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草創期인 만큼 부득이한 事情이 아닌가 한다.

本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分校의 位置가 불투명하다

면, 자연 分校圖書館의 위치도 이에 따라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본교에 分野別 또는 單科大學別로 分館(departmental or branch library)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中央圖書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교의 중앙도서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分校의 圖書館이 어떠한 地位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施設에 비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이 있는 대규모의 名門大學, 예컨대 Columbia大學校와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인 Butler Library 이외에도 크고 작은 departmental, professional 또는 branch library들을 합쳐서 40여개나 되고 장서수도 400여만권에 달하고 있으며, Harvard大學校의 法科大學圖書館은 法律關係書籍만이 100만권을 上廻하고 있으므로, 大學教育에 있어서 도서관의 비중을 얼마나 重要視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再論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마다 도서관건물만은 훌륭하게 지어놓고 있지만, 장서의 내용, 館長을 비롯한 專門司書의 資質 및 豫算配定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難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이 學問研究의 中樞的 役割을 하는 working library라기 보다 대학의 건물 중에 가장 듯보이는 象徴的인 存在로 轉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分校圖書館의 경우 좀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앙도서관이든 본교도서관이든 간에 大學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組織運營하려면 館長을 비롯한 專門司書의 資質과 뚜렷한 도서관의 育成方針 아래 충분한 財政的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長은 大學教授로서 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도서관장 자리는 도서관에 대한 專門知識의 有無如何에는 관계 없이 元老教授들의 補職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관장을 보좌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高級職員들도 專門教育을 받지 못한 充員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構成員에 의하여 본교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本校圖書館과의 관계에 있어서 分校圖書館이 發展指向的인

2) 이에 속하는 大學校로는 Harvard, Yale, Columbia, Princeton, Cornell, Brown, Dartmouth, University of Pennsylvania 등을 들 수 있다.

3) 原州에는 2年制의 保健學科와 醫豫科만이 본교의 학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醫豫科學生들은 本校의 醫豫科學生들과 마찬가지로 本科의 醫學教育을 서울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方向으로 가려고 할 때 적지 않은 마찰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分校가 本校와의 관계에 있어서 從屬關係를 탈피하고 獨自의으로 중앙대학교의 규모로 발전하려는 것이 대부분의 분교가 앞으로 指向하려는 目標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 現在の 實情에 비추어 볼 때, 분교의 도서관은 처음부터 본교의 중앙도서관과는 相異한 立場에서 獨立性을 維持하면서 분교의 기존 학과 및 앞으로 增設될 學科들을 支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고, 처음부터 合理的인 組織運營方案에 立脚하여 育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從屬關係에서 본교도서관의 지원을 받다가 適當한 時期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⁴⁾

3. 參考閱覽業務와 受書整理業務

도서관의 업무를 參考閱覽業務인 public 또는 reader service와 受書整理業務인 technical service⁵⁾로 兩分하여 볼 때, 본교의 중앙도서관이 충분한 人力을 確保하고 能率을 發揮할 수만 있다면, technical service는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統一的으로 專擔하고 圖書의 選定과 public service 기능만 分校圖書館에서 행하는 것이 人力을 節減하고 豫算을 有效適切하게 활용할 수 있는 最上의 方法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technical service를 중앙에서 統一的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적에 대한 相異한 分類番號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費用節減과 二重的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利點이 있다.

Technical service 중에서도, 특히 分類 및 目錄作成에 소요되는 시간을 最小限度로 단축시켜서 도서관의 public service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은 分校圖書館과 같이 專門人力을 二重으로 확보하는데 難點이 있는 경우에 採擇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歐美的 先進諸國들의 경우,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이 technical service로부터 public service 쪽으로 移行함으로써, 도서의 蒐集·分類·保管만을 문제삼고 있던 從來의 方法을 止揚하고 도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資料價値가 있는 장서를 積極活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情報提供機能을 重視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司書의 機能도 글자 그대로 keeper of the books로부터 public service를 중심으로 한 information experts로 職務의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technical service의 기능은 가급적 統一된 方法에 의하여 中央에서 管理하는 것이 technical ser-

vice를 위하여 도서관마다 人力과 時間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經濟的인 方法이 될 것이다. 先進國家에서 행하고 있는 cataloging in source나 MARC 카아드의 全國的인 普及은 도서의 分類 및 目錄作成을 가급적 도서관마다 통일시켜서 不必要한 努力과 經費의 節減을 기하려는 데 있다.

地域的으로 散在해 있어서 technical service의 협조가 實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technical service와 public service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相關關係가 있는 大學 내의 圖書館들 간에는 technical service를 중앙에서 管理하고 기타의 分館은 特殊한 資料의 蒐集·整理를 分掌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ublic service機能에 重點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方法論이 될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미국의 大規模 綜合大學圖書館이 채택하고 있는 方法으로서, 分館에 最小限度의 cataloger를 채용하여 public service에 重置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학문의 성질상 중앙에서 管理하기 어려운 醫學·法學 또는 工學 등과 같은 分野의 도서관은 分館이라 하더라도 중앙도서관과는 사실상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되며, 카아드 또는 書誌情報의 交換도 상호간에 거의 아니 하다는 事實이 하고 있는 것이 通例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와 같이 본교의 中央圖書館 自體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狀態 아래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分校에 독립된 도서관을 育成하려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첫째로, 分校圖書館을 獨自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能力과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유능한 館長을 教授 중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 分校圖書館의 草創期에 있어서 본교의 중앙도서관과의 관계에서 그 地位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決대로 필요한 先決問題가 될 것이다. 막대한 財政的인 支援이 分校圖書館의 育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은 대부분의 新設分校에 있어서 共通된 現象이므로, 불필요한 二重經費를 가급적 절약한다는 名目 아래 중앙도서관이 分校圖書館의 運營에 있어서 지나친 干涉을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分校圖書館의 精確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有能한 館長의 存在야말로 不可缺한 要素가 될

4) M.A. 필핀드著, 李炳穆譯, '大學圖書館',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2) (圖書館學叢譯叢書 6), pp.50~56; 李喆珪著,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68) (韓國圖書館學叢書 17), pp.47~58 참조.

5) Maurice F. Tanber and Associates, Technical Services in the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p.9~11.

것이다.

둘째로, 館長은 教授職도 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의 수립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分校圖書館의 基本方向에 대한 것만 관여하는 것이 原則이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實務事項은 專門職에 있는 유능한 司書들이 담당해야 도서관의 장기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능한 관장이라도 교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補職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館長이 交替되는 경우에도 分校도서관의 基本政策에 큰 變動을 가져오지 않고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遂行되려면, 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司書課長級 이상의 전문사서를 비롯하여 유능한 전문직원들이 다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능한 館長 못지 않게 不可缺한 要素가 된다.

셋째로, 充分한 圖書豫算이 分校도서관에도 割當되어 독자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고 장서를 分校도서관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絶對的인 裁量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制度上으로 保障되어야 한다. 分校設立의 草創期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分校의 모든 經費가 本校의 財政的인 支援에 의하여 充當될 수 밖에 없으므로 分校도서관의 豫算도 本校 中央圖書館의 豫算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通例이므로 豫算執行過程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이 부당하게 分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主要圖書 選定에 있어서 直接 또는 間接的인 干涉의 形態로 나타날 수 있다.

끝으로 technical service에 대한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전담하는 경우에 人力의 不足을 핑계삼아 필요한 도서를 適時에 分校도서관에 공급해 주는데 지연이 생기게 되면, 分校도서관의 public service機能行使에 뜻하지 않은 차질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校와 分校 間に 圖書館業務를 分擔하는 경우에도 相互間的 協力が 원활히 되어 分校도서관의 日常業務에 지장이 없어야지, 本校의 중앙도서관이 故意的으로 또는 無意識的으로 分校도서관의 육성에 不必要한 制動을 거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分校도서관이 有能한 專門人力을 確保할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도 積極的인 支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加급적 technical service에 관한 것은 中央에서 專擔해 주도록 制度上으로 協力方案을 강구한 다음, 이에 수반하여 생길 수 있는 受書, 分類 및 目錄作成에 있어서의 지연이나 착오가 생기는 幅을 加급적 줄여서 分校도서관이 public service를 중심으로 한 參考閱覽業務에 專心할 수 있도록 配慮하는 것이 草創期에는 理想的인 方法일 것이다.

그러나 分校도서관이 조만간 本校의 확장과 함께 급

속도로 성장되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을 때, 專門人力과 財政的인 支援만 確保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本校의 중앙도서관과는 相異한 작도에서 特色 있게 獨自的으로 育成해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分校圖書館 育成方案이 아닐까 한다.

4. 學生圖書와 教授用圖書

圖書의 選定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要하는 分野로서, 장서의 質이 무엇보다도 圖書館의 優劣을 판가름해 주는 關鍵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500여 단권의 장서와 5,000여종의 manuscript를 保有하고 있는 美國議會圖書館에는 世界 各地에서 발간된 東西古今의 資料가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어떠한 分野에 대한 研究도 가능할 정도이며, 심지어 中國에서는 이미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古典的인 圖書들이 의회도서관에는 있기 때문에 適當한 時期에 中國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을 만큼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막강한 장서를 구비하고 있는 이러한 世界的인 圖書館도 모든 자료들을 빈틈없이 구비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財政的인 理由에서는 물론 기타의 여러가지 이유, 예컨대 醫學이나 특수한 科學技術分野의 資料 등은 다른 국가적인 규모의 特殊圖書館에 備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또는 꼭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理由 등으로 인하여 蒐集範圍에서 除外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專門圖書의 選定을 위하여, 특히 大學圖書館이나 研究圖書館에서 特定에 主題分野에 博士學位를 갖고 있는 동시에 專門司書로서의 資格과 訓練을 쌓은 사람을 scholar librarian으로서 優待하여 主題別 選定の 最高責任을 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特殊人力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subject specialist의 제도를 導入하는 것도 도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方法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subject specialist의 職位는 主題分野의 碩士學位와 圖書館學의 碩士學位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充당하며, 그들은 主題別 專門家로서 도서관의 collection building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은 아직도 그 규모나 장서의 내용으로 볼 때, 독일식의 scholar librarian이나 미국식의 subject specialist를 확보하여 도서의 선정에 해야 할 정도로 장서의 體系化가 필요한 상태에 도달한 것도 아니며,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財政的인 뒷받침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

므로 도서의 선정문제를 論議하기 전에, 우리들이 우선 解決해야 하는 문제는 財政的인 뒷받침이 許容하는 限度 내에서 國內外의 資料를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지 學習과 研究活動에 필요한 것이면 그 優劣을 가리지 말고 광범위하게 蒐集해야 할 것이다.⁶⁾

相當數의 代表的인 外國書籍들이 번역되어 있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解讀이 不充分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번역판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限定된 豫算을 갖고 운영되어야 하는 분교도서관에 있어서 是는 加급적이던 專攻分野의 原典을 新刊으로 確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理由는 번역판은 아무리 有능한 번역자가 번역한 경우에도 原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誤譯이 많은 번역판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原典의 內容을 그릇 전달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長期的으로 볼 때는 原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圖書館의 役割에 대해서 별로 理解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高位行政當局者들은 아직도 도서관을 학생들이 敎科書 정도의 自己 책이나 갖고 들어가 읽거나 基礎的인 參考書나 취적이는 곳으로 理解하고 있어서 特定한 學問分野에 대한 깊이 있는 장서의 수집은 不必要하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學生圖書와 敎授用圖書를 區別하여, 특히 分校圖書館의 경우에는 국내서적이나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의 구입에 優先權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를 수시로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本교의 중앙도서관의 장서가 이미 몇 10만권에 도달한 대학교의 分校圖書館의 方向設定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릇된 指針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있다.

대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건 本교도서관이건 간에 그 根本的인 存在價値가 既存學科 및 增設되는 學科의 學生들의 學習과 敎수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加급적 많이 蒐集하여 活用할 수 있게 해주는 學問發展에 있어서의 支援的인 機能(supporting function for academic development)을 遂行할 수 있느냐의 與否에 있다고 볼 때, 도서관의 규모나 장서의 多寡 보다는 그 質이 問題視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本교도서관의 장서수는 일정한 선을 유지해야 하며, 장서의 내용도 學生 위주로 할 것이지 敎수의 研究위주로 육성해서는 아니되며, 외국서적의 선정은 국내서의 선정보다 좀더 엄격한 制約을 가해야 한다는 등의 意見은 本교도서관의 성격상 中央圖書館의 指揮監督을 받아야 하는 從屬的인 位置에 있는 分校의 象徴的인 存在라는 立場을 대비해 주는 그릇된 생각에서 由來하는 것으로서, 本교도서관을 도서관다운 大學圖

書館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止揚해야 할 先決問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結 論

우리나라의 分校圖書館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本校內의 分館과는 그 성격이 相異한 독립된 도서관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本교도서관의 사정 에 따라 草創期에는 잠정적으로 受書와 分類 및 目錄作成을 중심으로 한 technical service를 전달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本교도서관은 本교의 學生들의 學習과 敎수들의 研究活動을 뒷받침해 주는데 필요한 參考 및 閱覽業務를 중심으로 한 public service에 置重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業務分擔은 本교의 중앙도서관의 運用이 經驗이 풍부한 有資格 人力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分校圖書館을 능히 指揮監督하고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우에만 可能한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中央도서관의 業務自體도 능률적으로 處理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本교도서관 업무의 一部까지 떠맡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어, 分校圖書館 發展을 오히려 저해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分校圖書館의 合理的인 組織運營方案을 모색하는 경우에 分校自體가 도서관의 육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有資格 人力과 財政的인 支援를 확보할 수 있다면, 中央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 없이 獨自的으로 本교도서관을 分校의 發展計劃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分校圖書館으로서 採擇할 수 있는 最上의 方案이 될 것이다.

6) Theodore Samore, ed., Acquisition of Foreign Materials for U.S. Libraris.(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Inc., 1973), pp.ix~x 참조.